

노동정책연구

2003. 제3권 제2호 pp.69~94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이 규 용**
김 용 현***

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의 첫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을 학벌이라는 범주와 취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 가령 자격증 취득, 재학중 교육훈련, 일 경험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재학중 취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미취업 탈출확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그다지 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 이행 기간을 분석한 결과 출신 대학별로 미취업 탈출확률에는 매우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첫 일자리의 질을 나타내는 임금수준을 비교한 결과 상위권 대학 출신에 비해 중위권이나 하위권 대학 출신들의 첫 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학중 취업준비 노력들은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높일 뿐 만 아니라 이러한 노력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직장에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같은 취업준비 노력이 이루어질 경우 대학그룹별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미취업 탈출확률, 첫 일자리의 질, 학벌, 재학중 취업준비 노력

I. 머리말

청년층 고실업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다. 이들 계층의 실업률이 높은 배경에는 성장률 둔화라는 경기적 측면과 경제위기 이후 인적자원관리 방식의 변화 및

투고일: 2003년 5월 12일, 심사의뢰일: 5월 19일, 심사완료일: 6월 24일

* 원고를 꼼꼼히 읽고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leeky@kli.re.kr)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yhk08@kli.re.kr)

이에 따른 기업의 노동수요 구조의 변화를 일차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정규교육을 종료한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은 평생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잦은 노동이동을 경험하게 되며, 비정규 고용형태가 많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 변화에 탄력적인 특성을 갖는다.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일자리 경험을 갖지 못하고 유희화¹⁾됨으로써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는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훨씬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직업생애 진입기에 경험하는 노동력의 유희화는 기존의 인적자본을 감가상각할 뿐만 아니라 근로경험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정착도를 저하시켜 노동력의 유희화를 가속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하기 때문이다(이병희, 2003). 따라서 학교를 졸업하고 장기간의 미취업 기간을 줄이거나 미취업 경험 없이 노동시장으로 원활히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한 기초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국내 연구 동향도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와 이러한 성과를 결정하는 청년층 시기의 행태, 즉 교육 선택이나 취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의 관련성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지표로는 크게 첫 일자리의 취업 여부, 미취업 기간의 탈출확률 등 수량적인 평가지표와 고용형태, 임금수준, 만족도 등 질적인 평가 기준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 안주엽·홍서연(2002), 이병희(2002, 2003), 김우영(2002)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분석 시기를 첫 일자리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로 확대하여 청년층이 재학중 갖는 근로경험, 청년기의 교육 선택, 직업세계의 정착 과정이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 즉 직장만족도나 임금·고용형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도 이루어져 왔다(장수명, 2002; 최영섭, 2002; 이병희, 2003; 김주섭, 2003 등). 최근 들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층 노동시장에 관한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제도들을 평가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의 일환으로 청년층을 전문대졸 이상, 특히 4년제 대졸자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을 학벌이라는 범주와 취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 가령 자격증 취득, 재학중 교육훈련, 일 경험 등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주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전문대졸과 4년제 대졸 간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은

1) 청년층 고용 문제를 논함에 있어 실업 개념보다는 미취업상태를 뜻하는 유희화 개념이 문제의 본질에 보다 적합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두 집단을 분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주요 설명변수로 ‘학벌’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된 분석은 4년제 대졸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나라의 고학력 청년층 채용시장에서 출신 대학이 중요한 선발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다양한 취업준비 노력들이 취업성과를 보완하는 기능으로 작용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2002년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기초하고 있다. 동 설문조사의 대상은 2001년 2월에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6,265명이며, 설문 항목에는 학교교육을 마친 신규 인력이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과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상호작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설문지는 크게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졸업 이후 첫 직장에 관한 정보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 항목의 인적사항으로 첫 대학 재학중 직업훈련 이수 경험, 첫 대학 재학중 일을 한 경험, 자격증 취득 여부, 경제활동상태, 그리고 전공 및 출신 학교에 대한 정보가 있으며, 취업자 항목에는 현 직장을 시작한 시기, 직업의 종류, 직장에서의 지위, 현 직장이 첫 직장인지 여부, 그리고 월 평균임금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본 연구가 의도하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초점은 대학 재학중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근로경험(이하에서는 इसे 가지를 통합하여 ‘취업준비 노력’이라 함)과 출신 대학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으며, 노동시장 성과지표로는 첫 일자리로의 이행 기간, 첫 직장의 임금수준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분석 자료에 대한 설명과 기초통계를 제시한다. 제Ⅲ장에서는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며, 제Ⅳ장에서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분석 자료의 기초통계

1. 표본의 구성

설문조사에 응답한 표본은 총 6,265명이지만 이 중 31세 이상인 자, 직장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학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²⁾, 그리고 졸업 후 다시 진학한 자는 제외하였

다. 이에 따라 실제 표본은 2001년 2월 대학을 졸업한 19세에서 30세의 청년층 5,940명이다. 표본의 구조를 보면 5,940명 중 남성이 2,846명(47.9%)이고 여성은 3,094명(52.1%)이며, 학력별로 보면 전문대졸이 3,034명(51.1%)이고, 대졸 이상이 2,906명(48.9%)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표본 5,940명 중 첫 일자리를 취득³⁾한 표본은 4,232명이며 1,708명은 조사시점(2002년 11월)까지 일자리를 취득한 경험이 없는 우측 절단(censored)된 표본이다. 일자리를 경험한 4,232명 중 866명(20.5%)은 졸업 시점 이전에 첫 일자리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경험이 없는 1,708명의 분포를 보면 남성이 56.0%, 여성이 44.0%로 남성이 높게 나타난 데 비해 학력별 분포는 전체 표본의 분포와 유사하다.

<표 1> 표본의 구성

(단위: 명, %)

		표본 전체	첫 일자리 취득		일자리 경험 없음
			졸업전 일자리 취득		
전 체		5,940 (100.0)	4,232 (100.0)	866 (100)	1,708 (100.0)
성 별	남 성	2,846 (47.9)	1,890 (44.7)	485 (56.0)	956 (56.0)
	여 성	3,094 (52.1)	2,342 (55.3)	381 (44.0)	752 (44.0)
학 력	전문대졸	3,034 (51.1)	2,147 (50.7)	425 (49.1)	887 (51.9)
	대졸이상	2,906 (48.9)	2,085 (49.3)	441 (50.9)	821 (48.1)

2. 성별·학력별 취업준비 노력과 노동시장 성과

<표 2>는 재학중 훈련경험 여부의 비율, 재학중 근로 여부의 비율, 자격증 취득 여부, 그리고 첫 직장의 월평균 임금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재학중 훈련경험 여부는 대학 재학중 학원·직업훈련 이수 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직업기술학원, 외국어 학원, 인문·사회계 학원, 경영 실무계 학원, 예체능계 학원, 민간직업전문학교를 이수한 경험을 의미한다. 재학중 근로 여부는 아르바이트(개인 과외지도 제외), 현장실

- 본 연구에서는 2001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재학중 취업준비 노력 등이 졸업 이후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기 때문에 직장 취득 시기가 2000년 6월 이전인 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여기서 첫 일자리를 취득하였다는 의미는 첫 일자리를 취득한 경험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첫 일자리가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일자리를 옮긴 경우, 또는 첫 일자리를 취득한 경험은 있지만 조사시점 현재 일자리가 없는 표본도 모두 해당된다.

습 경험을 의미하며⁴⁾, 자격증 취득은 재학중 국가자격(운전면허자격증은 제외), 국가기술자격, 민간공인자격, 민간자격, 국제공인자격, 기타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면 이에 해당된다. 첫 직장의 월 평균임금은 2002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2001년에 첫 직장을 경험한 표본에 대해서는 200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조정하였다.

성별로 재학중 취업준비 노력을 실시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재학중 훈련경험 비율의 경우 여성 경험자들은 전체 여성의 40.2%로 나타나 남성의 34.7%에 비해 높았으며, 재학중 자격증 취득비율 면에서도 여성은 59.4%로 남성의 52.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중 근로경험 비율을 보면 남성의 78.07%, 여성은 78.57%가 재학중 근로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관계없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⁵⁾.

학력별 취업준비 노력을 보면 재학중 훈련경험 비율의 경우 전체 전문대졸자 중 26.9%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데 비해 4년제 대졸자들은 이보다 약 22%포인트 높은 48.7%로 나타났다. 반면에 재학중 자격증 취득 비율은 전문대졸이 61.9%로 4년제 대졸자(49.8%)들의 취득 비율보다 12.1%포인트 높게 나타나, 전문대졸자들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학중 근로경험 비율은 두 집단 모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제 취업 성과를 첫 직장의 일자리 취득경험 비율과 첫 직장의 월 평균임금을 통해 살펴보자. 전체 여성 표본 중 첫 일자리를 경험한 비율은 75.7%인 데 비해 남성의

<표 2> 재학중 취업준비 노력과 노동시장 성과

(단위: %, 만원)

분류 기준	첫일자리 경험	재학중 훈련경험 비율	재학중 근로 비율	재학중 자격증 취득 비율	첫 일자리 월임금
여성	75.69	40.18	78.57	59.37	115.90
남성	66.41	34.72	78.07	52.21	158.66
전문대	70.77	26.90	77.02	61.87	120.22
4년제 대학	71.75	48.69	79.70	49.76	154.11
전 체	71.25	37.56	78.33	55.94	135.66

주: 첫 일자리 경험, 재학중 취업준비 노력(재학중 훈련경험, 재학중 근로 비율, 재학중 자격증 소지 비율)은 전체 표본을 100으로 하였을 때 해당 비율을 의미함.

- 4) 원 설문에는 재학 중 근로경험으로 ‘정규직’이 있었으나 이에 응답한 상당수가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아르바이트 항목 중 개인과외외도는 처음부터 설문조사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 5) 이와 같이 재학중 근로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재학중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우는 66.4%가 첫 일자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첫 일자리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그런데 임금수준을 보면 첫 일자리의 월 평균임금은 여성이 116만 원인 데 비해 남성은 159만 원으로 나타나, 남성의 임금수준이 여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를 학력별로 보면 첫 일자리를 경험한 비율은 전문대졸자가 71.8%, 4년제 대졸자가 각각 71.3%로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첫 일자리의 월 평균임금 수준을 보면 전문대졸자들은 120.2만 원인 데 비해 4년제 대졸자들은 154만 원으로 나타나, 학력에 따른 임금 차이가 상당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첫 일자리 경험 유무별 취업준비 노력

여기서 첫 일자리 경험자란 현재의 취업 유무와 관계없이 졸업 이후 일자리 경험이 있는 표본이 모두 해당된다. 따라서 조사 시점 현재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에 속해 있지만 졸업 이후 첫 일자리 경험이 있으면 이에 해당되며, ‘첫 일자리 경험 없음’은 2001년 2월 졸업 이후 한 번도 일자리를 가져본 경험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표 3>은 첫 일자리 경험 유무별로 취업준비 노력을 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한 번이라도 취업준비 노력을 하였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2001년 2월 졸업 이후 2002년 11월까지 일자리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28.75%(1,708명)이며, 이 기간 동안에 첫 일자리 경험이 있는 사람은 71.25%(4,232명)로 나타났다. 취업경험이 없는 자 중 재학중 훈련경험자의 비율은 32.6%이고, 근로경험자의 비율은 66.4%, 그리고 재학중 자격증 취득자 비율은 51%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첫 일자리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재학중 훈련경험자의 비율은 39.6%이고, 근로경험자의 비율은 83.2%, 그리고 재학중 자격증 취득자 비율은 5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첫 일자리 경험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재학중 취업준비 노력을 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는 재학중 취업준비 노력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점수는 해당 취업준비 노력에 포함되어 있는 경험을 각각 1점으로 하여 합산한 것으로 취업준비 노력의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⁶⁾ 표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첫 일자리를 갖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취업준비노력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6) 각 취업준비 노력을 동등한 비중으로 하여 합산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으나 본 연구가 이용한 설문지에 각각의 취업준비 노력의 강도를 나타내는 항목이 없지만 취업준비 노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점 외에 현실적으로 취업준비 노력을 모두 나열할 경우 분석이 매우 복잡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업준비 노력의 질적 지표로 각각의 항목을 합산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표 3〉 첫 직장 경험 유무별 취업준비 노력 1

(단위: 명, %)

분류 기준	빈도(비율)	재학중 훈련경험 비율	재학중 근로경험 비율	재학중 자격증 취득 비율
경험 없음	1,708(28.75)	32.55	66.39	50.88
경험 있음	4,232(71.25)	39.58	83.15	57.99
전 체	5,940(100)	37.56	78.33	55.94

〈표 4〉 첫 직장 경험 유무별 취업준비 노력 2

(단위: 명, %)

분류 기준 빈도(비율)	재학중 훈련경험			재학중 근로경험			재학중 자격증 개수		
	점수	빈도	(비율)	점수	빈도	(비율)	점수	빈도	(비율)
경험 없음 1,708 (100)	0	1,152	(67.45)	0	574	(33.61)	0	1,043	(61.07)
	1	134	(7.85)	1	695	(40.69)	1	299	(17.51)
	2	364	(21.31)	2	439	(25.70)	2	189	(11.07)
	3	11	(0.64)				3	96	(5.62)
	4	44	(2.58)				4	39	(2.28)
	5						5	25	(1.46)
	6	3	(0.18)				6	5	(0.29)
	7						7	8	(0.47)
	8						8	4	(0.23)
경험 있음 4,232 (100)	0	2,577	(60.89)	0	713	(16.85)	0	2,291	(54.14)
	1	390	(9.22)	1	1,984	(46.88)	1	874	(20.65)
	2	1,100	(25.99)	2	1,535	(36.27)	2	564	(13.33)
	3	40	(0.95)				3	280	(6.62)
	4	136	(3.21)				4	107	(2.53)
	5	1	(0.02)				5	66	(1.56)
	6	8	(0.19)				6	27	(0.64)
	7						7	17	(0.40)
	8						8	6	(0.14)

4. 대학 분포별 노동시장 성과

<표 5>는 출신 대학에 따른 취업준비 노력과 노동시장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출신 대학의 분류는 학벌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대상 표본의 출신 대학 분포를 일차적으로 파악한 후 서울 시내 상위권 대학 출신을 ‘가’군으로 서울 시내 및 수도권 대학 일부와 지방국립대 출신을 ‘나’군으로, 나머지 출신 대학을 ‘다’군으로 분류하였다.7) 분석대상 표본의 대학 분포를 보면 ‘가’군 대졸자의 비율은 10.4%이고, ‘나’군 대졸자는 13.3%, 그리고 ‘다’군 대졸자의 비율은 25.3%이며, 전문대졸자의 비율은 51.1%로 나타났다. 재학중 근로경험을 보면 ‘가’군 대졸자들은 여타 대학에 비해 근로경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격증 취득 비율에서도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경험 비율을 보면 미미한 차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군 대졸자와 전문대졸자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취업의 질적 지표를 나타내는 임금수준을 보면 학벌에 따른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군 대졸자들의 월 평균임금은 181만 원이고 ‘나’군 대졸자는 158만 원인 데 비해 ‘다’군 대졸자와 전문대졸자들은 각각 142만 원, 120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5> 대학 분포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단위: 명, %, 만원)

		대학분포별 표본 분포	재학중 교육훈련 여부	재학중 근로비율	재학중 자격증 취득 여부	취업 비율	첫 일자리 월임금
4년제 대학	‘가’군	616(10.4)	46.75	75.81	38.96	68.34	182
	‘나’군	789(13.3)	52.85	83.02	47.15	69.71	158
	‘다’군	1,501(25.3)	47.30	81.01	55.56	74.21	142
전문대		3,034(51.1)	26.89	77.02	61.87	70.76	120
전 체		5,940(100.0)	37.56	84.78	55.94	71.25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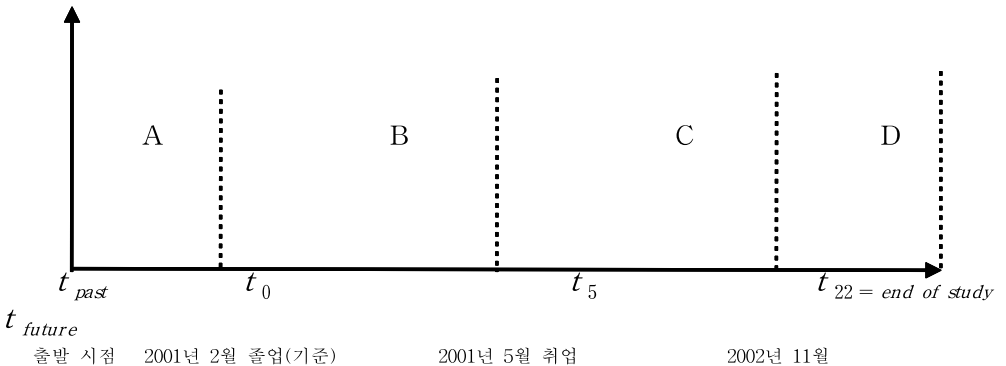
7) 이러한 분류의 이면에는 2000년 대학입학 수능시험 성적을 고려하였음을 밝혀 둔다. 즉 본 연구의 표본 자료에 포함된 35개 4년제 대학들에 대해 입시학원에서 제공한 학과별 입학 예상점수를 학교별로 집계한 후, 다시 위 표에서 나타나는 ‘가’ ‘나’ ‘다’ 대학군으로 나누어 평균을 구한 결과 2000년 수능점수 400점 만점에 각 학군별 평균 수능시험 성적은 ‘가’ 대학군 345.04점, ‘나’ 대학군 301.59점, ‘다’ 대학군 262.9점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이 크게 무리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비록 개별 학과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입학 성적에 따라 대학을 구분한 데 따른 문제점이 있지만 학벌이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려는 연구 목적에 비추어 이러한 구분이 불가피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5. 첫 일자리취득에 소요되는 기간

본 분석에서 사용되는 첫 일자리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계산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자료가 우측 절단(censored data)되었다는 점이다. [그림 1]과 <표 6>를 통해 complete data와 censored data의 차이를 살펴보자.

[그림 1]에서 t_0 는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인 2001년 2월을 시작(t_0)으로 만약 2001년 5월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 그 이행 기간(duration)은 3(=2001년 5월-2001년 2월)월이며, event는 163명이 됨을 알 수 있다(표 6 참고).⁸⁾ 졸업 시점인 2001년 2월 이전에 취업을 한 사람들의 이행 기간은 0으로 부여되며 <표 6>에서는 이행 기간이 0인 사람이 1,308명(약 31%)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에서 영역 A에 있는 표본들은 출발 시점 이전에 취업을 한 경우이다. 조사 시점이 끝나는 2002년 11월에 취업한 사람은 4명(event)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t_0 에서 t_{22} 사이에 취업한 사람은 모두 4,232명(총 event)이며, 이들의 이행 기간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만약 조사 시점이 끝나는 2002년 11월까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실업상태 혹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다면 이 사람들은 censored data가 된다.⁹⁾

[그림 1] 취업자와 비취업자에서 complete data와 censored data의 구별



8) 생존 분석(survival)을 다루는 의학에서 event는 보통 사망(death)으로 명명되며 censored data는 통계적 방법으로 사건의 발생 여부에 대해 불확실한 자료가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survival time은 취업 시점 마이너스 졸업 시점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survival time의 범주는 영역 B와 C이다.
 9) <표 3>에서 보듯이 censored data, 즉 2002년 11월까지 미취업자 1,708명(28.75%)이 여기에 해당되며 [그림 1]의 D영역이다.

<표 6>의 이행 기간을 통한 취업자의 첫 일자리 소요 기간을 살펴보면 졸업 전에 약 30.9%가 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event는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행 기간이 약 13개월이 되는 때부터 취업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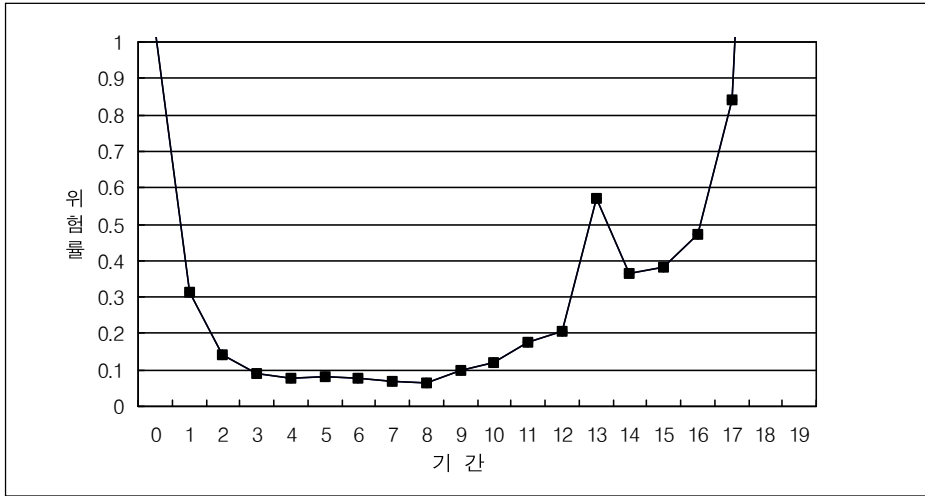
<표 6> 이행 기간을 통한 취업자의 첫 일자리 소요 시간

(단위: 월, 명, %)

이행기간 (월)	빈도 (event)	백분율	누적 도수	누적 백분율	이행기간 (월)	빈도 (event)	백분율	누적 도수	누적 백분율
0	1,308	30.91	1,308	30.91					
1	697	16.47	2,005	47.38	11	153	3.62	3,370	79.63
2	279	6.59	2,284	53.97	12	148	3.5	3,518	83.13
3	163	3.85	2,447	57.82	13	259	6.12	3,777	89.25
4	131	3.1	2,578	60.92	14	122	2.88	3,899	92.13
5	128	3.02	2,706	63.94	15	92	2.17	3,991	94.31
6	108	2.55	2,814	66.49	16	77	1.82	4,068	96.12
7	89	2.1	2,903	68.6	17	75	1.77	4,143	97.9
8	82	1.94	2,985	70.53	18	65	1.54	4,208	99.43
9	112	2.65	3,097	73.18	19	20	0.47	4,228	99.91
10	120	2.84	3,217	76.02	21	4	0.09	4,232	100

[그림 2]는 <표 6>을 바탕으로 하여 이행 기간을 고려한 위험함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취업이 어떤 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서 취업이 이 시점에서 발생하여 미취업으로부터 탈출하는 조건부 순간탈출확률(=순간취업확률)이다. 즉 졸업 이후 초기 시점(0~5개월)에는 취업확률(hazard rate)이 떨어지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 취업 시점이 되는 졸업 이후 약 10개월 후부터는 순간 취업률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순간취업률이 일시 하락한 후 위험함수(hazard function)의 기울기가 증가하여 조사 시점이 끝나는 시점에 가까이 와서는 순간취업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2] 이행 기간을 고려한 위험함수(hazard function) 추정



Ⅲ.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1. 청년층의 첫 일자리 이행 기간 분석

본 장에서는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미취업 탈출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미취업 기간이란 최종 학력을 이수(졸업 또는 중퇴)한 시점에서 첫 일자리를 취득하게 되는 시점으로 정의되므로 관측 기간 동안 첫 일자리를 취득한 경험이 없는 우측 절단(right censored)된 자료를 포함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Cox(1972)의 비례 해저드 모형(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우측 절단된 표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치성을 가진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재학중 취업준비 노력들이 졸업 이후 미취업 탈출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취업준비 노력 변수들은 학원·직업훈련 이수, 자격증 개수, 재학중 근로경험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취업준비 노력의 정도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취업준비 노력으로 나타나는 양적 변수들을 하나의 표준화된 변수

로 생성하였다. 따라서 직업기술학원, 외국어 학원, 인문·사회계 학원, 경영 실무계 학원, 예체능계 학원, 민간직업전문학교 이수경험 여부에 대해 부여한 점수를 학원·직업훈련 이수 변수로 사용하였다. 재학중 근로경험 변수로는 아르바이트, 현장실습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여 변수화하였으며, 재학중 취득한 국가자격(운전면허자격증은 제외), 국가기술자격, 민간공인자격, 민간자격, 국제자격을 개수를 합한 것을 자격증 개수 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재학중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나의 표준적인 변수로 만들기 위해 위의 학원·직업훈련 이수, 자격증, 재학중 근로경험 등 3변수를 표준화한 후 그 값을 더하여 재학중 ‘취업준비 노력’이라는 통합 변수를 만들었다¹⁰⁾.

둘째, 출신 학교에 따라 미취업 탈출확률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취업준비 노력들이 상대적으로 취업 가능성이 낮은 대학 출신자들의 미취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표 7>은 Cox의 비례 해저드 모형을 이용하여 전문대졸과 4년제 대졸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업 해저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보다 남성이 미취업상태에 오래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미취업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격증 개수’와 ‘재학중 근로경험’ 변수가 양(+)의 유의적인 값으로 나타나, 미취업으로부터의 탈출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3변수를 통합하여 생성한 취업준비 노력 변수 또한 첫 일자리 이행 기간을 짧게 함으로써 미취업 탈출확률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격증과 근로경험 변수와는 달리 재학중 학원·직업훈련 변수는 미취업 탈출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격증 변수가 미취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김우영(2002), 김안국(2002)의 연구와 일치하며 자격증이 취업시장에서 중요한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전문대졸자와 4년제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을 분리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표 8>은 전문대졸자를 대상으로 하여 첫 일자리 이행 기간을 추정한 결과이다. 취업준비 노력이 첫

10) 표준화는 본래의 값에서 평균을 뺀 후 이를 다시 표준 편차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재학중 교육훈련 여부, 재학중 근로경험, 재학중 자격증 취득 개수들은 재학중 취업을 위한 성과들이며,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각각의 해당 항목을 합산하여 점수화한 것이다. 해당 변수들을 통합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각각의 취업준비 노력의 정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합산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주) 6 참조.

<표 7> 첫 일자리 이행 기간 추정결과 : 전체

	모형 I	모형 II
성별 더미(남성=1)	-0.073 (0.041)*	-0.070 (0.040)*
연령	0.020 (0.009)**	0.022 (0.009)**
학력 더미(대졸=1)	-0.044 (0.036)	-0.079 (0.035)
취업준비 노력		0.032 (0.009)***
자격증 개수	0.062 (0.011)***	
학원·직업훈련 이수	-0.008 (0.015)	
재학중 근로경험	0.082 (0.022)**	
사회계열 더미	0.031 (0.043)	0.020 (0.043)
교육계열 더미	0.365 (0.086)***	0.363 (0.086)***
공학계열 더미	-0.029 (0.061)	-0.034 (0.061)
자연계열 더미	-0.190 (0.078)**	-0.197 (0.078)**
의학계열 더미	0.272 (0.075)***	0.278 (0.074)***
예체능계열 더미	0.118 (0.071)*	0.105 (0.070)
-2log L	64242.067	64242.067
Wald Chi-Square	82.679***	71.4377***
표본수	5,940(Event=4,232, Censored=1,708)	

주 : 1) ***는 1%, **는 5%, *는 10%에서 유의함.
 2) 전공별 더미의 기준은 인문계열임.
 3) ()는 표준오차임.

<표 8> 첫 일자리 이행 기간 추정결과(전문대졸)11)

	모형 I	모형 II
성별 더미(남성=1)	-0.048 (0.057)	-0.040 (0.056)
연령	0.011 (0.011)	0.010 (0.010)
취업준비 노력		0.047 (0.012)***
자격증 개수	0.067 (0.021)***	
학원·직업훈련 이수	0.007 (0.021)	
재학중 근로경험	0.072 (0.024)***	
사회계열 더미	0.011 (0.063)	0.004 (0.063)
교육계열 더미	0.377 (0.094)***	0.375 (0.094)***
공학계열 더미	0.143 (0.084)*	0.132 (0.084)
자연계열 더미	-0.084 (0.112)	-0.081 (0.111)
의학계열 더미	0.252 (0.090)***	0.264 (0.089)***
예체능계열 더미	0.130 (0.081)	0.120 (0.081)
-2log L	29720.179	29720.179
Wald Chi-Square	51.346***	46.163***
표본수	3,034(Event=2147, Censored=887)	

주 : 1) ***는 1%, **는 5%, *는 10%에서 유의함.
 2) 전공별 더미의 기준은 인문계열임.
 3) ()는 표준 오차임.

11) 전문대졸자의 경우 대학 등급 분류가 모호하여 대학 그룹별 노동시장 성과 분석을 생략하였다.

일자리 이행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자격증 개수와 재학중 근로경험은 양(+)¹²⁾의 유의성을 보이고 있지만, 학원·직업훈련 이수¹³⁾는 미취업 탈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9>는 4년제 대졸자를 대상으로 취업준비 노력과 출신 학교 그룹을 주요 변수로 하여 미취업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I은 취업준비 노력을 각각 분리하여 분석한 것이고, 모형 II는 취업준비 노력을 통합 변수로 만들어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III은 모형 I에 대학 그룹과 취업준비 노력 각각의 상호작용 효과를 추가한 것이고, 모형 IV는 모형 II에 취업준비 노력 통합 변수와 대학 그룹의 상호작용 효과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I의 첫 일자리 이행 기간 추정 결과를 보면 자격증 개수만 유의적(+)¹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학중 근로경험이나 학원·직업훈련 이수¹⁵⁾는 미취업 탈출확률을 높이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출신 대학 변수의 경우 미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1%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대졸자 신규 채용시장에서 출신 대학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모형 III과 모형 IV에서 보듯이 출신 대학 그룹과 취업준비 노력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한 분석에서 해당 변수들이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 그룹 ‘나’군과 대학 그룹 ‘다’군 출신자들이 취업준비 노력을 해도 대학 그룹 ‘가’군과의 미취업 탈출확률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4년제 대졸자들의 재학중 취업준비 노력이 신규 채용시장에서 출신 대학의 명성 효과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4년제 대졸자의 경우 미취업으로부터의 탈출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는 출신 대학이라 할 수 있으며, 재학중 취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졸업 후 미취업 탈출확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채용시 일차적으로 출신 대학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청년층이 재학중 경험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취업 가능성을 높여주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2) <표 9>의 4년제 대졸자만을 분석으로 한 경우와 달리 전문대졸자의 경우 재학중 근로경험 비율과 노동시장 성과가 양(+)¹⁶⁾의 유의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전문대에서 근로경험이 주로 학업방식의 하나로 현장실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장실습이 재학중 근로경험으로 파악되고 현장실습이 취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참고로 본 설문에 나타난 전문대졸자들의 3,034명 중 1,808명(30.4%)이 재학중 현장실습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9> 첫 일자리 이행 기간 추정결과 : 4년제 대졸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성별 더미(남성=1)	-0.117 (0.063)*	-0.117 (0.063)*	-0.119 (0.063)*	-0.119 (0.063)**
연령	0.033 (0.016)**	0.036 (0.016)**	0.033 (0.016)**	0.036 (0.016)**
취업준비 노력		0.021 (0.012)*		0.012 (0.028)
자격증 개수	0.069 (0.020)***		0.010 (0.058)	
학원·직업훈련 이수	-0.015 (0.019)		0.001 (0.043)	
재학중 근로경험	0.011 (0.033)		0.028 (0.070)	
대학그룹 '나' 더미	-0.350 (0.067)***	-0.352 (0.067)***	-0.359 (0.132)***	-0.352 (0.067)***
대학그룹 '다' 더미	-0.341 (0.060)***	-0.330 (0.060)***	-0.333 (0.114)***	-0.329 (0.060)***
대학그룹 '나' 더미×취업준비 노력				0.015 (0.036)
대학그룹 '다' 더미×취업준비 노력				0.010 (0.032)
대학그룹 '나' 더미×자격증 개수			0.092 (0.072)	
대학그룹 '나' 더미×학원·직업훈련			-0.012 (0.056)	
대학그룹 '나' 더미×재학중 근로			-0.033 (0.098)	
대학그룹 '다' 더미×자격증 개수			0.060 (0.063)	
대학그룹 '다' 더미×학원·직업훈련			-0.026 (0.051)	
대학그룹 '다' 더미×재학중 근로			-0.018 (0.083)	
-2Log L	28,666.227	28,666.227	28,666.227	28,666.227
Wald Chi-Square	79.112***	69.914***	80.612***	69.901***
표본수	2,906(Event=2,085, Censored=821)			

주: 1) ***는 1%, **는 5%, *는 10%에서 유의함.

2) 전공계열은 보고하지 않음.

3) 대학그룹 더미는 '가'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대학그룹 더미 1은 '나'군을, 대학그룹 더미 2는 '다'군을 의미함.

4) ()는 표준 오차임.

2. 청년층의 첫 일자리 임금소득 결정요인 분석

앞의 이행 기간 분석은 첫 일자리의 내용에 관계없이 취업 여부만을 설정하여 미취업 탈출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그런데 노동시장 성과로서 취업 여부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보여주는 변수 중 하나가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로 보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졸자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같은 조건이라면 초임 수준이 높은 직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하면 초임 지표를 첫 일자리의 질로 받아들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¹³⁾

분석의 편의를 위해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취업 시기는 2002년 취업을 기준으로 하여 2001년도 취업자들에 대해서는 취업 당시의 초임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조정하였다. 설문조사 항목에 주당 근로시간 정보가 있으나 개인 조사라는 특성상 시간당 임금보다는 월 평균임금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월평균 로그임금을 사용하였다. 다만, 근로시간은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하여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표 10>은 전문대졸자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첫 일자리 임금결정식을 추정한 결과이다. 모형 I은 취업준비 노력을 각각 분리하여 분석한 것이고, 모형 III은 취업준비 노력을 통합변수로 만들어 추정한 결과이다. 그리고 모형 II와 모형 IV는 모형 I과 모형 III에 각각 선택편의를 조정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우리가 여기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임금근로자는 전체 표본 중 임금근로를 선택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자영업자나 비취업자의 임금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만일 이 경우 임금근로자의 표집이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표본선택 편의(sample selection bias)가 발생하게 된다(Heckman, 1979). 따라서 자기선택 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여기서는 1단계로 임금근로자 선택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취업준비 노력의 정도, 성, 연령 등 인적 특성, 전공분야, 그리고 출신 대학의 지역을 설명변수로 하여 프로빗 모형을 추정한 후 2단계로 임금결정식을 추정하였다.¹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성일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정규직일수록, 대졸 이상일수록, 취업이행 기간이 짧을수록 초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신규 채용시장에서의 수요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준비 노력 변수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먼저 학원·직업훈련 이수가 많을수록 초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학중 근로경험 변수는 음(-)의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격증 개수는 유의적이지 않았으나 선택편의를 교정한 모형 II의 추정식에서는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취업준비 노력을 통합변수로 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는 취업준비 노력이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에 양(+)의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3) 첫 일자리의 임금이기 때문에 이는 청년층의 실제 생산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 채용시장에서 청년층이 갖고 있는 인적 특성이 노동시장 진입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4) 선택편의 조정을 위한 Heckman의 2단계 추정법은 <표 11>과 <표 12>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여기서는 probit 모형의 추정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추정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선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출신 대학이 위치한 지역, 성, 연령, 자격증 개수, 학원·직업훈련 이수 등으로 나타났으며, 재학중 근로경험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첫 일자리 임금결정모형 추정 결과 : 전체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상수항	3.394 (0.072)***	3.078(0.127)***	3.344(0.071)***	2.998(0.099)***
성별 더미(남성=1)	0.117 (0.015)***	0.087(0.018)***	0.010(0.014)***	0.079(0.016)***
연령	0.040 (0.003)***	0.046(0.004)***	0.042(0.003)***	0.047(0.003)***
고용형태 더미(정규직=1)	0.241 (0.017)***	0.240(0.017)***	0.240(0.017)***	0.240(0.017)***
학력 더미(대졸=1)	0.161 (0.012)***	0.124(0.017)***	0.167(0.012)***	0.118(0.015)***
취업준비 노력			0.009(0.004)***	0.015(0.004)***
자격증 개수	0.005 (0.005)	0.011(0.006)**		
학원·직업훈련 이수	0.017 (0.005)***	0.017(0.005)***		
재학중 근로경험	-0.022 (0.006)***	-0.007(0.006)***		
취업이행 기간	-0.007 (0.001)***	-0.007(0.001)***	-0.007(0.001)***	-0.007(0.001)***
사회계열 더미	-0.005 (0.015)	0.010(0.015)	-0.001(0.014)	0.014(0.015)
교육계열 더미	-0.164 (0.030)***	-0.143(0.031)***	-0.183(0.030)***	-0.137(0.031)***
공학계열 더미	-0.091 (0.020)***	-0.075(0.021)***	-0.093(0.020)***	-0.071(0.020)***
자연계열 더미	-0.038 (0.027)	-0.086(0.032)***	-0.041(0.027)	-0.098(0.029)***
의학계열 더미	0.043 (0.025)***	0.118(0.035)***	0.032(0.025)*	0.133(0.032)**
예체능계열 더미	-0.078 (0.024)***	-0.085(0.024)**	-0.077(0.024)***	-0.083(0.024)***
근로시간	0.001(0.000)***	0.001(0.000)***	0.001(0.000)***	0.001(0.000)***
선택편의 조정(λ)		0.369(0.122)***		0.452(0.089)***
조정된 결정계수	0.349	0.351	0.346	0.351
F-value	137.99***	130.22***	157.22***	148.79***
표본수	3,833	3,833	3,833	3,833

주: 1) ***는 1%, **는 5%, *는 10%에서 유의함.

2) 전공별 더미의 기준은 인문계열임.

3) ()는 표준 오차임.

4) 취업준비 노력은 학원·직업훈련 경험, 자격증 개수, 재학중 근로경험 변수를 표준화하여 이를 합산한 값임.

5) 선택편의 조정(λ)은 Heckman(1979)의 Sample Selection bias를 해소하기 위해 생성한 변수임(종속변수 임금근로자(=1)·비임금근로자(=0)).

첫 일자리 이행 기간 분석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전문대졸자와 4년제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두 집단을 분리하여 별도로 추정하였다. <표 11>은 전문대졸자를 대상으로 하여 첫 일자리 임금결정식을 추정한 결과이다. 취업준비 노력 변수 중 재학중 근로경험 변수만 음(-)의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이병희, 2002)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병희(2002)는 재학중 근로경험이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표 11> 첫 일자리 임금결정모형 추정결과 : 전문대졸

	모형 I	모형 II
상수항	3.602 (0.178) ^{***}	3.193 (0.130) ^{***}
성별 더미(남성=1)	0.189 (0.028) ^{***}	0.135 (0.023) ^{***}
연령	0.037 (0.005) ^{***}	0.047 (0.004) ^{***}
고용형태 더미(정규직=1)	0.188 (0.021) ^{***}	0.188 (0.021) ^{***}
취업준비 노력		0.004 (0.005)
자격증 개수	-0.002 (0.008)	
학원·직업훈련 이수	0.010 (0.007)	
재학중 근로경험	-0.036 (0.010) ^{***}	
취업이행 기간	-0.008 (0.001) ^{***}	-0.008 (0.001) ^{***}
사회계열 더미	-0.015 (0.020)	-0.019 (0.020)
교육계열 더미	-0.188 (0.033) ^{***}	-0.168 (0.033) ^{***}
공학계열 더미	-0.025 (0.026)	-0.030 (0.026)
자연계열 더미	-0.043 (0.036)	-0.024 (0.036)
의학계열 더미	0.000 (0.040)	0.052 (0.035)
예체능계열 더미	-0.078 (0.027) ^{***}	-0.086 (0.027) ^{***}
근로시간	0.001 (0.000) ^{***}	0.001 (0.000) ^{***}
선택편의 조정(λ)	-0.231 (0.178) ^{***}	0.174 (0.122)
조정된 결정계수	0.338	0.334
F-value	71.8	81.3
표본수	2,084	

주 : 1) ***는 1%, **는 5%, *는 10%에서 유의함.
 2) 전공별 더미의 기준은 인문계열임.
 3) ()는 표준 오차임.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 이행을 신속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 반면에 임금방정식에는 재학중 근로경험이 마이너스로 유의하지 않게 나오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병희(2002)의 연구에서는 4년제 대졸 여부를 더미 변수로 처리한 관계로 재학중 근로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전문대졸자와 4년제 대졸자 간의 차이가 나타나 있지 않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졸자와 4년제 대졸자를 분리하여 추정한 결과 재학중 근로경험 여부가 첫 일자리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학중 근로경험이 미취업 탈출확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앞의 <표 8>과 <표 9>의 결과와 비교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전문대졸자의 경우

<표 12> 첫 일자리 임금결정모형 추정 결과 : 4년제 대졸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상수항	3.799 (0.024)**	3.793 (0.280)***	4.049 (0.141)***	4.059 (0.141)***
성별 더미(남성=1)	0.079 (0.024)***	0.086 (0.024)***	0.105 (0.023)***	0.108 (0.022)***
연령	0.027 (0.006)***	0.026 (0.006)***	0.028 (0.006)***	0.027 (0.006)***
고용형태 더미(정규직=1)	0.333 (0.029)***	0.329 (0.029)***	0.357 (0.029)***	0.358 (0.029)***
취업준비 노력			0.009 (0.004)**	0.029 (0.010)***
자격증 개수	0.021 (0.009)**	0.057 (0.021)***		
학원·직업훈련이수	0.020 (0.009)**	0.042 (0.019)**		
재학중 근로경험	-0.006 (0.015)	0.006 (0.022)		
취업이행 기간	-0.005 (0.001)***	-0.005 (0.001)***	-0.005 (0.001)***	-0.005 (0.001)***
대학그룹 '나' 더미	-0.072 (0.032)**	0.029 (0.045)	-0.070 (0.024)***	-0.071 (0.024)***
대학그룹 '다' 더미	-0.180 (0.029)***	-0.126 (0.047)***	-0.189 (0.021)***	-0.190 (0.021)***
대학그룹 '나' 더미×취업준비 노력				-0.028 (0.013)**
대학그룹 '다' 더미×취업준비 노력				-0.022 (0.011)*
대학그룹 '나' 더미×자격증 개수		-0.041 (0.025)*		
대학그룹 '나' 더미×학원·직업훈련		-0.010 (0.019)		
대학그룹 '나' 더미×재학중 근로경험		-0.006 (0.019)*		
대학그룹 '다' 더미×자격증 개수		-0.037 (0.021)*		
대학그룹 '다' 더미×학원·직업훈련		-0.027 (0.018)		
대학그룹 '다' 더미×재학중 근로경험		-0.011 (0.031)		
근로시간	0.001(0.000)***	0.001(0.000)***	0.001(0.000)***	0.001(0.000)***
선택편의 조정(λ)	0.169(0.267)	0.208(0.268)	0.250(0.145)*	0.283(0.146)*
조정된 결정계수	0.257	0.259	0.257	0.260
F-value	36.49***	27.56***	41.39***	36.95***
표본수	1,749	1,749	1,749	1,749

주: 1) ***는 1%, **는 5%, *는 10%에서 유의함.

- 2) 전공계열은 보고하지 않음.
- 3) 취업준비 노력은 학원·직업훈련 경험, 자격증 개수, 재학중 근로경험 변수를 표준화하여 이를 합산한 값임.
- 4) ()는 표준 오차임.

첫 일자리 이행 기간 분석에서는 재학중 근로경험이 양(+)¹⁾의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4년제 대졸자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재학중 근로경험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표 10>에서는 음의 유의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전문대졸자만을 대상으로 한 추정 결과(표 11)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의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4년제 대졸자만을 대상으로 한 추정 결과(표 12)에서는 재학중 근로경험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대졸자의 경우 재학중 근로경험 여부가 첫 일자리의 임금에 음(-)의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여기서의 추정 결과를 놓고 볼 때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즉 재학중 근로경험의 내용이 주로 서빙, 판매서비스, 과외, 단순노무직, 사무보조 등이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낮은 집단일수록 인적자본에 투자하기보다는 이러한 활동을 활발히 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졸업 후 근로경험의 연장선상에서 단순업무에 취업할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포기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끝으로 <표 12>는 4년제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첫 일자리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I은 취업준비 노력 각각을 변수로 설정한 것이고, 모형 III은 취업준비 노력을 통합변수로 만들어 추정한 결과이다. 그리고 모형 II와 모형 IV는 모형 I과 모형 III에 각각 대학 그룹 더미와 취업준비 노력 변수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정규직일수록, 그리고 취업으로의 이행 기간이 짧을수록 초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취업준비 노력과 출신 대학 간의 차이가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자. 모형 I과 모형 II에서 보듯이 취득한 자격증이 많을수록, 그리고 학원·직업훈련 경험을 많이 받을수록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높은 직장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학중 근로경험은 대학 그룹과 대학 그룹·취업준비 노력들의 상호효과 변수를 추가하였을 경우 <표 11>의 모형 II에서와 같이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⁵⁾.

대학그룹 더미 변수를 보면 대학 그룹 ‘가’군에 비해 ‘나’군과 ‘다’군 출신 졸업자들의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군의 경우 ‘가’군에 비해 약 12~17% 가량 초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출신 대학간 졸업자들의 초임 수준에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모형 II는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로 자격증 개수(대학 그룹 더미 ‘나’와 ‘다’), 재학중 근로경험(대학 그룹 더미 ‘다’) 변수가 음(-)의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격증 취득이나 재학중 근로경험이 있는 경우 ‘가’군의 출신 대학들이 ‘나’군과 ‘다’군에 비해 초임 수준이 높은 직장에 취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형 III과 모형 IV는 4년제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노력 변수들을 통합변수

15) 4년제 대학에서 재학중 근로경험의 임금효과는 대학 수준을 통제할 경우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음.

16) 한계효과는 $1 - \exp(\text{추정계수})$ 로 계산한다.

로 만들어 분석한 결과이다. 재학중 취업준비 노력이 많을수록 초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그룹 더미 변수와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한 분석(모형 IV)에서는 추정계수가 음(-)의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학중 취업준비 노력이 많을수록 초임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동일한 취업준비 노력에 따른 대졸자들간의 초임 수준의 크기가 출신 대학에 따라 보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속칭 학벌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가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IV.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첫째, 재학중 학원·직업훈련 경험, 자격증 취득, 근로경험 등과 같은 취업준비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첫 일자리로의 이행 기간이나 임금과 같은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이다. 둘째, 노동시장 성과가 출신 대학별로 차이가 나는지, 즉 일종의 학벌에 의해 좌우되는가에 대한 관심이다. 셋째, 첫 일자리의 성과가 출신 대학간에 차이가 나지만 재학중 다양한 취업준비 노력들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하에 실증분석을 시도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취업준비 노력이 첫 일자리로의 이행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문대졸자와 4년제 대졸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문대졸자의 경우 학원·직업훈련 이수를 제외하고 자격증 개수나 재학중 근로경험이 미취업 탈출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취업준비 노력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4년제 대졸자들의 경우 자격증 변수만 미취업 탈출확률에 양(+)의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4년제 대졸자들의 경우 미취업 탈출확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는 출신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신규 채용시 출신 대학을 중요한 채용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청년층이 재학중 경험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취업 가능성을 높여주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첫 일자리의 질을 나타내는 임금수준을 비교한 결과 속칭 상위권 대학 출신에

비해 중위권이나 하위권 대학 출신들의 첫 일자리에에서의 임금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상위권 대학 출신일수록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에 선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4년제 대졸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을 때 재학중 취업준비 노력들은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높일 뿐 만 아니라 이러한 노력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직장에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취업준비 노력에 따른 대졸자들간의 초임 수준의 크기가 대학그룹 간에 보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른바 명문대 효과가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13> 재학중 취업노력의 효과

	전 체		전문대		4년제 대학	
	미취업 탈출확률	임금효과	미취업 탈출확률	임금효과	미취업 탈출확률	임금효과
취업준비 노력	+(***)	+(***)	+(***)	+	+	+(***)
자격증 개수	+(***)	+(**)	+(***)	-	+(***)	+(***)
학원·직업훈련 이수	-	+(***)	+	+	-	+(***)
재학중 근로경험	+(**)	-(***)	+(***)	-(***)	+	+(**)

주) 1) ***는 1%, **는 5%, *는 10%에서 유의함.

2) 자격증 개수 전체의 임금효과는 선택편의 조정한 식의 추정 결과임(표 10의 모형 II).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졸 청년층 노동시장의 성과에 출신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채용은 기업의 의사결정 행위이기 때문에 출신 대학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출신 대학 타이틀이 노동시장에서 낙인효과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낙인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재학중에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취업준비 노력들은 노동시장에서 취업능력을 제고시키는 기능이 약한 만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규명하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자료의 제약으로 취업준비 노력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이를 각각

분석하거나 통합된 지표로 만들어 그 효과를 분석하였지만 이는 보다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취업준비 노력들의 평가를 평가절하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취업준비 노력의 노동시장 성과가 제대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다 체계화된 설문을 통해 별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순희. 「학교에서 일터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전문대학 교육」. 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 발표논문, 2002.
- 강순희·노홍성. 「직업훈련의 취업 및 임금효과」. 『노동경제논집』 23권 2호(2000), 한국노동경제학회.
- 강순희·박성재. 「청년층의 학교교육과 직무의 일치」, 『제1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중앙고용정보원, 2002.
- 김안국. 「청년층 미취업의 실태 원인 분석」. 『제1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중앙고용정보원, 2002.
- _____. 「교육훈련의 경제적 성과-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25권 1호(2002) : 131-160.
- 김우영. 「학력, 훈련, 아르바이트, 자격증의 경제적 효과」, 『제1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중앙고용정보원, 2002.
- 송경일·안재익. 『SPSS for Window 생존분석』. 고려정보산업, 1999.
- 서기태·이호성. 「학교교육이 직업지위 획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주교대논집』 34권 2호(1997) : 101-122.
- 안주엽·전병유·이병희. 『학교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0.
- 안주엽·홍서연. 「청년의 학교졸업 후 구직기간 분석」. 『노동정책연구』 2권 1호(2001),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 「재학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제1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중앙고용정보원, 2002.
- 이병희·안주엽·전병유·장수명·홍서연.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이효수. 「대졸청년층 노동시장의 이행실태와 정책과제」. 한국경제학회 창립50주년 기념 제10차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 (a).
- 장수명. 「대학교육의 경제학」. 『노동정책연구』 2권 1호(2001), 한국노동연구원.
- 장원섭·김형만·옥준필.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 최강식. 「학력별 상대별 임금격차의 변화와 원인분석」. 『경제학연구』 45권 4호, (1997) : 193-236.

- Bratberg, E. and A. Nilsen. “Transition form School to Work: Search Time and Job Duration”. Discussion Paper No. 27, University of Bergen, 1998.
- Green W. H. *Econometric Analysis*, fourth edition, Prentice-Hall, 2000.
- Light, A. “In-School Work Experience and the Returns to Schooling”. *Journal of Labor Economics* 19 (1) (2000) : 65-93.
- Ryan, P. “The School-to-Work Transition: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9 (March 2001) : 34-92.
- Simon, C. “Human Capital and Metropolitan Employment Growth”. *Journal of Urban Economics* 43 (1998) : 223-243.

abstract

The Determinants of Youth Labor Market Performance

Lee, Kyu-Yong · Kim, Yong-Hyun

This paper analyses labor market performance of youth graduate in terms of duration to the first job after leaving and wage of the first job. We focused on labor market performance impact of academic clique and in school efforts getting employment such as work experience, training and getting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We used survey data that Krivet conducted in November 2002 on collage or university graduate of 2001. We classified university graduate into three group of upper, middle and lower by ranking.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of periods of first job transition, academic clique have strong significant influence in escape probability unemployment. In school efforts have some roles to escape unemployment not leading role. Wage level, which is representative quality of the first job, is higher in the upper graduate than other groups. In school efforts have influence to acquire good job in terms of higher wage. And in case of same in school efforts, the findings show that wage difference among university more enlarge

Key words: School to work transition, Probability of unemployment escape, Quality of first job, Academic clique, In school efforts getting employment.